

耘谷 元天錫의 詩 인식 탐구

南 宮 遠 *

<目 次>

- | | |
|---------------|--------------------|
| I. 序言 | 2. 시는 뜻과 정서의 표현이다. |
| II. 원천석의 시 인식 | 3. 창작의 동기 |
| 1. 시는 삶이다. | III. 結語 |

<국문 초록>

원천석의 시 창작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고 더 좋은 시를 짓기 위한 노력은 치열했다. 그는 737제 1144수라는 많은 분량의 시를 남겼다. 양도 많고 작품성도 뛰어난 시를 창작한 시인 원천석에 관한 연구들에서 원천석의 시 인식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기존의 논저들을 원천석의 절의와 은사로서의 명성에 압도되어 그의 역사 의식이나 사회 의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석의 시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원천석은 시를 곧 삶 그 자체로 인식하였다. 원천석은 그의 종교관이나 가치관을 시로 직접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의 모든 것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그의 시는 그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시가 삶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의 시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 유추가 가능할 정도이다.

원천석은 ‘시란 뜻을 말한 것이되 진술하고 간절한 정서의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시란 ‘언지’ 즉 뜻을 말하는 것이란 유가의 전통적 시 인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시는 사람의 정서를 겉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마음

* 치악고등학교 교사 / onewon61@hanmail.net

속에서 발생하는 각양각색의 정서들을 사실적으로 시 속에 구사하는 것이 시라는 생각이다.

원천석은 당시 사회의 중요한 사실들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시 창작의 동기로 사실의 기록을 중시하였다. 이런 면은 그의 시집을 일컬어 흔히 ‘시사(詩史)’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고려말 조선 초의 역사적 사실의 시적 표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주변의 일들에 대한 사실적 기록과 감회를 시로 창작하였다.

【주제어】 원천석, 삶, 뜻, 정서, 사실 기록

I. 序言

737題 1144首.

이것은 耘谷 元天錫의 운곡행록에 실려 있는 작품의 수이다. 고려의 전 시대를 통틀어 李穡이나 李奎報 다음으로 많은 양의 시를 쓴 시인이 원천석이다. 양으로 보아서나 시의 작품성으로 보아 본격적인 시인으로 손색이 없는 원천석에 관한 연구들에서 원천석의 시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었던가를 깊이 있게 다룬 글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원천석에 대한 연구 논저들은 그의 절의와 은사로서의 명성에 압도되어 원천석의 역사 의식이나 사회 의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종욱은 元天錫의 문학관을 크게 비판과 鑑戒의 詩論이라 하고 元天錫의 문학에 대한 입장을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하였다. 즉 憂國輔君의 시론과 후세인에게 감계와 교훈을 주기 위한 창작론이 그 첫 번째이고, 淸詩를 강조하는 시풍을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의미 또는 의지를 중시하는 시학이 두드러진 점이 두 번째이며, 형식에 대한 조탁보다 내용을 풍성하게 다잡아야 한다는 시정신을 기반으로 詩魔의 작용을 내세워 궁극적으로 좋은 시는 노력과 학습이 뒷받침되는 천재성이 검비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운곡 元天錫의 문학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다¹⁾. 운곡의 시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언급한 글이다. 그러나 여전히 운곡의 지사적 측면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곡의 우국보군 시는 실제 그리 많지 않으며 또 그런 시가 그러해야 한다는 운곡의 주장도 많지 않다.

운곡 시를 송시의 영향과 관련지어가며 분석한 연구²⁾도 있지만 그의 시 전체를 두고 연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곡의 작품에서 소식, 황정건 같은 인물이나 그 작품들이 운위되지 않고 있어서 운곡의 시 인식을 정확히 집어내었다고 하기 어렵다. 운곡 시의 본령이 사회 역사를 시화한 작품들이며 그의 시가 현실 비판성과 탈규범성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결론에 이른 논문³⁾ 또한 운곡의 시가 어떠어떠하다는 전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운곡 원천석을 연구할 때 그의 절의적, 처사적 면모에 강한 인상을 받은 채로 연구에 임하게 되면 그 결론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운곡에 대한 인상이 단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운곡의 은일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원천석의 시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원천석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자들이 원천석의 시에 대한 생각들을 주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데에는 운곡행록이 시로만 구성되어 있고, 시에 속한 并序가 아니고는 산문이 없어서 그의 시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일 터이다.

시인이나 시를 다루기에 앞서 시인의 문학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한문학계의 오랜 전통이다. 마찬가지로 원천석이 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원천석의 시나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데

1) 임종욱, 『운곡 원천석과 그의 문학』, 태학사, 1998, p.45.
 2) 김희섭, 「운곡 원천석의 시문학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 남화숙, 「원천석 문학의 방외인적 특성 연구」, 부산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에 일차적으로 도움을 줄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시 작품 속에 분명히 시에 관한 인식의 편린들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천석의 시에 대한 인식 찾기를 시도하였다. 우선 시구에 표현된 것들과 并序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 보아가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II. 원천석의 시 인식

1. 시는 삶이다.

운곡은 거의 모든 생애를 은거하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세 즈음부터 원주로 낙향하고 이어서 치악산에 은거하며 살았다. 운곡은 은거하며 사는 동안 일거수 일투족 자신의 행동과 회노애락의 전반적 정서와 주변인들과의 교류 등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상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것을 일일이 시로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 시는 예술로서의 문학이기에 앞서 삶 그 자체였다.

단적인 예로, 그는 자신의 사상의 결정체라 할 만한 삼교일리론도 시로 표현하였다. 물론 상당히 긴 병서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운곡의 이

4) 元天錫, 『耘谷行錄』 卷3, 「三教一理 并序」, “如居士, 三教一理論云. 三聖人 同生有周, 主盟正教. 儒教, 教以窮理盡性; 釋教, 教以明心見性; 道教, 教以修真鍊性. (中略) 由此觀之, 三聖人之設教, 專以治性, 所謂盡之鍊之見之之道, 雖有小異, 歸其至極廓然瑩澈之處, 皆同一性, 何有所窒礙哉. 但以三聖人各有門戶, 門之後徒各據宗旨, 皆以是己非人之心互相訛謬, 殊不知各人胸中, 三教之性明然具在也. 騎驢者笑他騎驢, 良可惜哉. 因寫四絕, 以繼居士之志云.” (如居士는 三教一理論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 성인은 함께 나서 두루함이 있으니 바른 가르침으로 주장을 삼았다. 유교는 窮理盡性(이치를 궁구하여 본성을 다하는 것)으로 가르쳤고, 佛敎는 明心見性(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것)으로 가르쳤고, 도교는 修真鍊性(참됨을 수련하여 본성을 단련하는 것)으로 가르쳤다. (중략) 이로써 본다면 세 성인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治性(그 성품을 다스림)으로 하였으니, 이른바 盡性이나, 鍊性이나, 見

러한 시도는 자신의 주장을 논변류의 글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元天錫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儒佛道 三教一理論이다. 세 종교가 각기 표상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궁극은 하나의 이치에 도달한다면서 그것을 儒教·道敎·佛敎의 순서로 동일한 운을 사용하여 시로 나타내었다.

儒	유교
格物修身窮理玄	사물 이치 구명하고 몸을 닦아 깊은 이치 찾아내니
盡心知性又知天	마음 다하여 본연의 성 알고 또 하늘을 아네.
從茲可贊乾坤化	이로부터 천지가 化育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霽月光風共洒然	비 개인 뒤의 달과 바람이 모두 상쾌하네.

道	도교
衆妙之門玄又玄	만물의 근원은 현묘하고도 현묘하니
眞機神化應乎天	진리 기틀 신비한 변화 하늘에 응하네.
精修直到希夷地	그 정기를 닦아야만 바로 希夷 이르는데
水色山光共寂然	물 빛이며 산 광채가 모두 다 적막하네.

釋	佛敎
一性圓融具十玄	한 성품이 원융하여 열 묘리를 갖추었고
法周沙界氣衝天	법은 두루 온 우주로 기세 하늘 닿는구나.
只這眞體如何說	저 진리의 참모습을 어떻게 말로 할까.
碧海氷輪共湛然	푸른 바다 차가운 달 아울러서 맑구나.

性的 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지극하고 맑고 맑은 곳으로 돌아가면 모두 하나의 性이니 무슨 막힘이 있겠는가. 다만 세 성인에게는 각각 문호가 있어 뒤의 문도들이 각각 종지에 의거하여 모두들 자기를 옳다고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하는 마음으로 속이고 헐뜯으니, 사람마다 가슴속에 세 종교의 性이 밝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나귀를 탄 사람이 다른 나귀를 탄 사람을 보고 비웃는 격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따라서 네 절구를 지어 거사의 뜻을 잇는다.)

會三歸一	셋은 모여 하나로 됨
三教宗風本不差	三教의 宗風에는 본래 차이 없는데도
較非爭是亂如蛙	是非를 다퉴에는 어지러워 개구리 같아.
一般是性俱無礙	한 가지 성품이라 모두 막힌 데가 없으니
何釋何儒何道耶	佛은 뭐고 儒는 뭐고 道는 또 무엇인가.5)

그의 시가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간파한 이들의 기록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운곡행록』 서문 저자 중의 하나인 朴東亮은 운곡의 시들 가운데 절의가 담겨 있는 것을 강조하고 나머지 시들 대부분은 산인이나 승려들과의 수창(酬唱)이라고 하였다.

선생같이 재야에 숨어 계시는 분이 시를 읊고 회포를 서술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바로 썼으니, 말씀 한 마디 글자 한 자가 모두 충분(忠憤)에서 나온 것이다. (중략) 선생의 시고(詩稿) 2권은 모두 선생이 스스로 쓰신 것이고, 대부분 산인이나 석자들과 오가며 주고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 약간은 바로 선생의 대절을 담은 글이라서 빨리 세상에 널리 퍼뜨려 표식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곧 베껴내어 한 책으로 만들고, 연대순으로 편집하여 제목을 시사라고 하였다. 풍속을 살펴보려는 자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될 책이니, 붓을 잡는 자들이 채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둔다.6)

박동량의 글 중에는 운곡의 시가 회포를 서술하되 사실에 근거하여 썼고 그것들이 모두 충분에서 우러나왔다는 것과 약간은 선생의 큰 절개를 담은 글이며 이는 세상의 표식이 될 만 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박동량이 운곡의 시 중 풍속을 기록한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5) 이 詩들은 모두 『耘谷行錄』 卷3에 나란히 붙어 있다.

6) 朴東亮, 「詩史序」, “其隱而在下也有如公者, 則吟詠陶寫之間, 據實直書, 一言一字, 無非忠憤所激. (中略) 公之詩二卷, 皆公所自書, 多與山人釋子, 所嘗往來酬唱, 而其中若干首, 卽公之大節所寓以存者, 亟當廣布於世, 爲之標式. 遂抄而爲一冊, 編其歲月於其間而名之曰, 詩史. 蓋觀風者之所不可已.”

18세기 관각문인의 대표적 인물인 丁範祖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생께서는 대대로 국록을 먹던 집안의 후손으로서 의롭게도 두 성을 섬기지 않고, 큰 산 깊은 바위에 숨어서 나무나 돌과 함께 늙으셨다. 그 자취는 은미하였지만, 처신한 절의로 말한다면 포은이나 야은 두 선생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아! 이제 선생의 유집을 읽고 선생의 심사를 엿볼 수 있으니, 그 읊은 시와 부른 노래가 나무꾼이나 고기잡이의 노래와 뒤섞여 나타나지만, 때때로 나라를 생각하고 가슴속을 그려낸 것들이 있다. 곧바로 지적한 것에는 비분강개함이 있고 완만하게 기탁한 것에는 방황함과 근심이 있어서, 완전히 기자의 맥수가 (麥秀歌)나 백이의 채미가(採薇歌)의 유음이 있다.⁷⁾

정범조가 주목한 것은 운곡이 圃隱이나 治隱을 능가하는 節義의 인물이라는 점이며 그의 시 작품 중 고국을 사모하는 마음[感念宗國]의 작품과 숨김없이 가슴 속 회포를 드러낸 것[輸寫胸臆]이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었다.

서문 저자 중 운곡을 시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여 ‘千古의 詩人 중 하나’라고 극찬한 사람은 鄭莊이다.

시는 사람의 性情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생께서 하늘과 땅의 정대한 기운을 타고 나서서 性情을 이루셨다. 그래서 선생이 읊으신 시들은 훌륭하고도 고상한데다 詩經과 書經의 전아한 법칙을 겸하였으니, 참으로 千古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선생을 일러서 감반(甘盤)이라고 하거나 백이(伯夷)라고 하는 것도 보텐 말을 아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본다면 하나의 뜬구름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을 뿐이다.

선생의 전형이 시에 있고 선생의 정신이 시에 있으니, 자손 된 이로서 선생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길도 역시 시를 존중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자손들이 간

7) 丁範祖, 「耘谷先生文集序」, “特以世祿之裔, 義不事二姓, 匿伏大山岨巖之中, 與木石同老. 而其迹微而隱, 其處義視二先生爲尤難. 嗟夫, 今讀先生遺集, 可以規測其心事矣, 其謳吟詠歎, 與樵歌漁唱錯出, 而有時感念宗國, 輸寫胸臆. 直指則悲憤慷慨, 婉寄則徘徊掩抑, 宛然有麥秀採薇之遺音.”

행하게 된 뜻이다.

아! 선생께선 덕으로써 학업을 가르쳐 우리 왕조의 억 만 세 터전을 열어 주시고, 절조로써 숨어 지내시어 군신의 억 만 세 기강을 세워 주셨다. 조선 한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은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누가 다행하게 여기지 않으랴.

선생의 시가 후세에 전하는 것은 선생을 위해서만 다행스런 것이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성정의 바름을 되찾아 학술을 두터이 하고 절의를 힘쓰게 하며 인심을 일으키고 세속을 교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집이 세상에 간행되는 것이 온 나라와 후세를 위하여 다행이 아니겠는가.⁸⁾

정장은 운곡의 시가 ‘정대한 성정에서 온 작품이며, 시경 서경의 법칙을 겸하여 갖춘 훌륭한 작품’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성정의 바름을 찾게 하고, 학술을 돈독하게 하며 절의에 힘쓰게 하며 인심을 진작시키고 세속을 교화하는 효용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운곡 시집의 저자 중 운곡의 절의뿐 아니라 그의 시인으로서 위대함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사람이 정장이다. 시가 곧 ‘운곡의 전형이며 간과 폐’라는 표현은 정장이 운곡과 그 시를 대단히 높고 중하게 평가했음을 단적으로 알게 한다.

2. 시는 뜻과 정서의 표현이다.

元天錫은 ‘시는 뜻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유가의 전통적 시 인식을 따르고 있다.

題詩爲言志 시를 짓는 것은 뜻 말하려 함이고,

8) 鄭莊, 「耘谷先生文集序」, “夫詩者出於性情, 先生稟二氣之正大以爲性情. 故發於吟哦者瀟灑灑, 兼詩書典雅之則, 千古詩家中一人. 謂先生甘盤, 謂先生伯夷, 無以加矣. 自先生視, 一浮雲過太虛耳. 先生之典刑在詩, 先生之肝肺在詩爲子孫尊慕之道, 詩爲重. 此子孫之入梓意也. 噫噫, 先生以德授業, 開我朝億萬世基, 以節肥遯, 立君臣億萬世綱. 朝鮮一邦之人, 咸受賜也, 孰不爲幸. 而先生之詩又傳之後世, 則不但爲先生幸也, 使覽者究厥性情之正, 敦學術勉節義, 則其於作人心化世俗, 大有補焉. 然則是集之行於世者, 豈非一邦後世之幸歟.”

把酒要寬憂 술을 드는 건 근심 없애려 함이네.⁹⁾

본격적으로 시에 대한 인식을 표명한 글이 아닌 시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언급으로서 그가 시가 본질적으로 사람의 뜻을 말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전통적 유가의 시 인식을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書經·舜傳』에서 제기된 ‘詩言志 歌永言’이나 毛詩 大序에 제시된 시의 定義를 시 속에 녹여 쓰고 있는 것이다. 원천석 당시 즉 14세기 전후에 성리학의 수용에 따라 동시적, 집중적으로 ‘言志, 情性, 思無邪’가 시론의 주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었다.¹⁰⁾ 원천석은 당대의 문학 풍토에서 일탈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一心無愧玉壺清 한 마음 부끄럼 없어 옥호같이 밝으니,
何用區區更問明 어찌 구차스럽게 밝음을 물어 보랴.
譜戀本非吾輩事 험뜯는 것은 본래 우리들 일이 아니니,
水邊林下養眞情 물가나 숲 속에서 진정을 기르리라.

天宇澄深似水清 하늘이 높게 트여 물같이 맑으니,
衆星排列讓光明 별려 있는 못 별들이 그 광명을 사양하네.
夜涼坐憶吾生事 서늘한 밤에 앉아서 내 평생 일 생각하니,
一念終無動性情 깊이 생각하지만 끝내 성정 움직이지 않는구나.¹¹⁾

이 시에서 원천석은 구차하지 않고 밝고 바른 ‘情’, 평생의 온갖 일들을 회상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性情’의 도야를 말하고 있다. 원천석에게 있어 ‘情’이 온유돈후의 情임을 알게 한다.

그런데 원천석은 ‘정’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자연스런 인간의 정서로 이해한 경우가 더 많다. 元天錫은 자신이 창작한 시를 두

9) 元天錫, 『耘谷行錄』 卷4, 「題元伊川所示詩卷後」.

10) 안병학, 「성리학적 사유와 시론의 전개 양상」, 『민족문화연구』 32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99, p.166.

11) 元天錫, 『耘谷行錄』 卷5, 「四月十九日卽事」(是日五月節也).

고 이르기까지 이 시는 情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말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창작된 시는 곧 작가의 정서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그 달 이십일에 고향에 이르러 밤에 앉아 고요히 거문고를 찾아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맑게 퍼져 내 원망을 풀어주었기에 네 개의 운을 사용한 장구로 한 수의 시를 읊어 함께 자리한 이들에게 보였다. 이것은 정이 심중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난 것이다.¹²⁾

거문고 연주를 감상하고 나서 마음의 원망이 풀릴 정도로 크게 정이 움직였기로 이에 시를 창작하였다는 설명이다.

이 또한 毛詩 大序에서 언급한 표현 중 ‘情動於中而形於言’ 부분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¹³⁾으로 元天錫의 시에 대한 견해가 매우 전통적 유가의 그것에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하는 근거이다. 고대의 시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元天錫의 언급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시를 ‘情’의 움직임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 함으로써 그가 앞서 말한 詩言志의 志가 ‘意志·志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 역시 元天錫의 고유한 주장이 아니고 毛詩 大序에 나타난 바이고 또 원천석 당시의 글을 인용한 것이므로 독특한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載道的 詩論으로 기울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원천석은 시는 사람의 정서를 겉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대저 노래는 절실한 속마음을 베껴 낸 것으로, 기뻐 즐거워함이나 슬픔에 잠기는 것이 여러 갈래로 들어있다.”¹⁴⁾ 라는

-
- 12) 元天錫, 『耘谷行錄』 卷1, 「聞任尙書彈琴詩 并序」, “月二十日, 到于鄉而夜坐, 悄然素琴而彈之, 其音泠泠然普矣. 可以解吾慍, 吟得長句四韻一首, 示諸同席. 此情動於中而形於言者也.”
- 13) 『毛詩』, 「大序」,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于中而形于言, 言之不足, 故嗟嘆之, 嗟嘆之不足, 故詠歌之, 詠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
- 14) 元天錫, 『耘谷行錄』 卷3, 「趙奉善作八節歌 求題目」, “大抵歌詞寫肺肝, 歡娛

진술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각양각색의 정서들의 사실적으로 시 속에 구사되는 것이 시라는 생각이다. 도리와 교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漢代의 詩言志說에서 벗어나 詩가 사람의 喜怒哀樂 등 다양한 정서들을 표출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인 詩緣情說¹⁵⁾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운곡의 생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옛 사람의 시를 읽고 옛 사람의 뜻을 보노라면, 오늘날과 옛날이 비록 달라지긴 하였으나 그 뜻만은 다르지 않다. 사람이 부귀, 빈천, 영고, 득실에 처하여, 모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슬퍼함 그리고 답답함이 나타나 있으니 그렇게 된 까닭은 정이 감동하여 드러나고 펼쳐 일어났기 때문이다. 슬프다, 情이여! 무릇 무슨 일로 사람들이 이 지경에 이르는가?¹⁶⁾

그(소강절)가 스스로 서하여 이르기를 “내 자신 窮한 곳에 있음을 애도하여 춘교시 십일편을 두었으니 비록 雅에 합당하지는 않으나 또한 情에서 끌어낸 것일 따름이라.” 하다. 그 시의 뜻이 깊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 만약 그러하다면 하늘이 부여한 ‘性’이 진실로 고금의 다름이 없는 것인가? 그런 까닭에 그 풍미를 생각하며 각각 그 운을 次韻하여 한편의 시를 이루었다.¹⁷⁾

動於中者是爲情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이니,

感慨有多端.”

- 15) 緣情說이 詩言志說과 다른 점은 詩言志의 志에 情 또한 포함되었으며 이때의 情은 교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고대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것이든 사람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뜻하며 이처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진정한 시라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趙則誠 主編, 『中国古代文学理论辞典』, 吉林文史出版社. 1984, p.414.)
- 16) 元天錫, 『耘谷行錄』 卷4, 「次康節邵先生春郊十詠詩 并序」, “讀古人詩, 看古人意, 今古雖殊, 其意不異. 人於富貴貧賤榮枯得失, 皆有權忻快樂哀戚鬱陶, 其所以然者, 情所感發而興起也. 惜哉, 情乎. 夫何事人至於斯也.”
- 17) 元天錫, 『耘谷行錄』 卷4, 「次康節邵先生春郊十詠詩 并序」, “其自敘云, 悼身之窮處, 故有春郊十一什. 雖不合於雅焉, 抑亦導于情耳. 其詩意深有感於予心者. 若然則天之所賦之性, 固無古今之異者歟. 故想其風味 各以其韻, 次成一什云.”

憑仗言辭外露呈 말에 의탁해서 밖으로 나타나네.
 雖是病中顏未會 비록 병중이라서 얼굴로 만나진 못해도,
 此言微妙孰申明 이 말의 미묘함이야 누군가 밝혀주리.¹⁸⁾

이러한 생각은 劉勰이 『文心雕龍』에서 말한 바 “사람은 칠정을 품수 받아 사물에 접할 때 느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사물에 대해서 느끼고 그 뜻을 읊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지 않은 것이 없다.”¹⁹⁾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 “옛 시인들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글을 창작했지만 후대의 시인들은 글을 짓기 위해 정을 꾸며 내고 있다. 시경의 작품들은 울분을 축적하였다가 성정을 시로 읊어 윗사람을 풍자했으므로 진정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를 위하여 글을 지은 것은 간결하며 진실을 묘사했지만 문장을 위해서 정서를 꾸민 것은 번거롭고 지나치다.”²⁰⁾는 유희의 말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3. 창작의 동기

생애 내내 시를 창작했던 운곡에게 있어서 시는 그의 삶 자체였으므로 그의 시 창작은 시간과 공간의 특정한 구분 없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다만 그가 詩序나 시 속에 그 사연을 밝힌 것들을 중심으로 시 창작의 동기를 살펴본다.

1) 심중의 정서 표출

元天錫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정서들을 마음에 담아 둘 수 없어

18) 元天錫, 『耘谷行錄』 卷5, 「病中戲書 四首」(時澗在京師從事.)

19) 劉勰, 『文心雕龍』, 「明詩篇」, “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

20) 劉勰, 『文心雕龍』, 「情采篇」, “昔詩人什篇, 爲情而造文, 辭人賦頌, 爲文而造情. 何以明其然. 蓋風雅之興, 志思蓄, 而吟詠情性, 以諷其上, 此爲情而造文也. 諸子之徒, 心非鬱陶, 苟馳誇飾, 鬻聲釣世, 此爲文而造情也. 故爲情者要約而寫眞, 爲文者, 淫麗而煩濫.”

밖으로 드러내어 시를 쓴다고 하였다. 앞 장에서도 시와 정서의 관계를 검토하였지만 원천석이 시를 창작하게 되는 대부분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심중에 가득차고 넘쳐 밖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경우이다.

人稀孤館靜	사람 적어 외로운 관사는 고요한데,
風樹似龍吟	나무 새 부는 바람 용 울음소리 같네.
野鶴投高岵	들의 학은 높은 산봉우리로 치솟고,
飢鳥集近林	굶주린 까마귀는 근처 숲에 모여드네
村寒烟火索	쓸쓸한 마을 풍경 연기가 가로막고,
山密水雲深	산은 뻑뻑 들렀는데 물 깊고 구름 깊어.
若不題詩句	만약에 시구라도 지어내지 않는다면,
誰知鬱鬱心	누가 있어 답답한 마음 알아줄까. ²¹⁾

세상과 격절된 곳에서 소외감을 만끽하며 마음속에 울울한 심정을 달랠 길 없어 그 심사를 시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심사를 드러낸 미련을 제외하면 시의 전체가 시인이 울울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전개되고 있다. 고요하고 쓸쓸한 관사 주위에 드센 바람이 무섭게 소리 내며 불고 있다. 학 날아간 들판의 공허와 굶주린 까마귀 떼 모여드는 숲을 바라보면서 저녁연기로 마을 풍경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시인의 내면은 울적하고 답답한 정서로 가득 차고 이에 시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문을 닫아걸고 옛 일을 살펴보며 사물에 부쳐 회포를 일으키니 이는 때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杜門覽古, 寓物興懷, 此不遇時者之所爲也.]

漢皇三尺定乾坤	한 황제의 삼척 검이 온 천하 평정하고,
膏血凝成破楚痕	기름과 피 엉긴 건 초 깨뜨린 흔적이네.
四海晏清長不用	온 세상 맑고 편안해 오래 쓰이지 못하니,
匣中龍吼政含怨	칼 집 속에서 크게 울며 원통함을 다스리네. ²²⁾

21) 元天錫, 『耘谷行錄』 卷5, 「次酒泉公館獨坐有感詩韻」.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실제 과거에 큰 공을 세웠으나 지금은 쓰일 데가 없어 칼집 속에서 울부짖으며 한을 달래고 있는 古劍이 세상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울분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떤 인물을 가리킨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으며 어찌면 시인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元天錫의 작시에 임하는 자세는 사마천이 말한 ‘發憤著書’와 더불어 그 창작의 동기가 같은 것이다. 사마천은 『史記·太史公自序』와 『報任少卿書』에서 “마음 속에 막혀서 맺혀진 것이 있어도 통할 길을 얻지 못하면[意有所鬱結 不得通其道]”, “發憤하여 작품을 쓰게 된다.[發憤之所爲作]”고 하였다.²³⁾ 사마천의 이러한 발분하여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그의 저작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 강렬한 비판을 초래하였으며 그 이상으로 사회와 정치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여, 봉건 사회 내 진보적 사상을 지닌 작가들에게 상당한 계시와 격려를 주었다.²⁴⁾ 궁형(宮刑)을 받고 울분에 차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을 보며 자신의 처지와 흡사하여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 元天錫은 사마천의 창작 동기에 대한 견해에 크게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마천 이후에도 당 한유에 의해 “평안치 못함이 있어야 울게 된다.[不平則鳴]”란 주장이 제기되었고, 송 구양수는 “시는 곤궁한 이후에야 공교로워진다.[詩窮而後工]”라 하여 사마천과 입장을 같이하는 견해들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여러 주장들을 元天錫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元天錫의 우울함 속의 시 창작은 시집의 후반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울분과 고독 속에서 지은 시를 하나 더 들어본다.

山齋終日雨 山 속 서재에 종일토록 비가 내리니,

22) 元天錫, 『耘谷行錄』 卷5, 「古劍」.

23) 임종욱 엮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1997, p.315.

24) 趙則誠 主編, 앞의 책, p.389.

寥落思空勞	쓸쓸한 생각으로 부질없이 수고롭네.
水漲川聲壯	물이 불어나 냇물 소리 커져가고,
雲籠岵勢高	구름이 둘러치니 산세 더욱 가파르구나.
誰能知坎坷	그 누가 때 못 만난 맘 알아줄까,
獨自聽蕭疏	홀로 앉아 쓸쓸하게 빗소리만 듣고 있네.
無事可怡悅	기뻐하고 즐거운 일 전혀 없으니,
裁詩寫鬱陶	시 지어 답답한 정 그리어 내네. ²⁵⁾

이 시에서도 鬱陶 즉 답답한 마음의 정경을 시를 통하여 그려내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전혀 없이 오직 쓸쓸하고 갑갑함만으로 그득한 마음의 憤이 시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놀랍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쓰기도 하였다. 「김을귀 상공의 시권 뒤에 쓴 시와 서문」 중 서문에서 볼 수 있다.

그 시 지은 뜻을 보니 부화한 말이 없었으며, 상공이 귀양살이를 하다가 부름을 받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한 시들이었다.

나는 상공을 모시고 노닐 지가 오래 되었는데, 한 번 헤어진 뒤에 여러 해가 바뀌었다. 비록 가 뵈고 싶은 뜻은 간절했지만, 축지술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마음만 괴로워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이제 간곡한 말씀을 듣고 보니 놀랍고도 기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삼가 原韻에 따라 시권 뒤에 써서 사례한다.²⁶⁾

자신을 위로하려 보낸 상대의 시의 내용이 간절하여 크게 감동함이 있어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했다.

25) 元天錫, 『耘谷行錄』 卷4, 「二十四日 雨中獨坐」.

26) 元天錫, 『耘谷行錄』 卷2, 「書金相公詩卷後(乙貴) 并序」, “觀其詩意 無浮華語, 皆用相公見謫于茲, 被召還朝之意, 慰解其情耳. 僕曩與相公陪遊日久, 一別之後, 星霜屢易. 雖切往謁之志, 愧無縮地之能, 勞心忉忉者, 有年矣. 乃今特蒙倦, 不勝驚喜, 謹次元韻, 書千卷後以謝之.”

도경 대선사의 편지에, “선생께서 불행히 지난해에 아들을 잃고 또 부인을 잃는 등, 슬픈 일이 잇달아 일어나 그지없이 애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상심하실까 염려되어 인과(因果)의 말을 빌려 시를 지어 바치니, 바라건대 마음을 다스리시어 슬픔을 푸소서.”라고 하면서 시 두 편을 보내왔다. (중략) 말씀이 간절하여 내 마음에 느낀 바 있으므로 차운하여 네 수를 바친다.²⁷⁾

아들과 아내가 사망하는 거듭된 불행으로 깊이 상심하던 차에 대선사가 위로 차 보낸 시를 읽고 감격하여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사실과 풍속의 기록

元天錫은 또한 당시 사회의 중요한 사실들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시를 많이 썼다. 그는 시 창작의 동기로 사실의 기록을 중시하였다. 그의 시집을 일컬어 ‘詩史’라 하는 것은 원천석이 당시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시로 사실을 기록하고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해 실망하고 현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였지만 그가 사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등 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는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닥치는 현실과 사실에 시로 대응하였다.

열닷새. 방산을 떠나 양구군에 이르렀는데 아전이나 백성의 집이 기울어지고 쓰러져 텅 비어 연기가 일지 않아 가던 도중에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이 고을은 낭천군이 아울러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부터 땅이 좁고 밭이 척박하여 백성의 재물이 미미했습니다. 근래에 권세 있는 집들이 그들의 전답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데다가 조세가 많아 비록 밭 하나 붙이거나 송곳을 세울 만한 땅이라 해도 헛되이 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세금을 거

27) 元天錫, 『耘谷行錄』 卷1, 「道境大禪翁寄書云, 先生不幸, 去年哭子, 今又失主婦, 悲哀相繼, 痛甚無極, 予懼其傷也. 推因果綴言爲詩以奉贈 庶亂思而紓哀也. (中略) 詞語切懇, 感於予心, 次韻奉呈.」.

두는 이들이 문에 매어지도록 잇달아 찾아와, 한 번이라도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손과 발을 높이 매달아 놓고 곤장으로 때려 살과 뼈가 보이도록 상처를 입히니, 살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떠돌아 옮겨 다니며 머물 곳을 잃은 까닭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함에 내 그 말을 듣고 오언 팔구의 시를 지어 쇠망한 실상을 기록하였다.²⁸⁾

이와 같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시 창작 동기는 元天錫 만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聞一多 같은 사람은 ‘詩言志’의 ‘志’를 記事 즉 ‘사실의 기록’으로 보아 “시란 사실을 기록한 것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²⁹⁾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보면 사실의 전달을 위한 시 창작이 매우 중요한 창작 동기 중의 하나인 것은 시인들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다만 원천석이 거리낄 것 없는 처지이면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입장에 있어 객관적인 관찰과 기술을 할 수 있었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그의 시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운곡의 시가 ‘시로 기록한 역사’라든지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회 고발시라고 하는 기존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탐토해야 하겠지만 운곡의 시집을 일견하면 그의 시가 진솔하고 간절한 정서와 솔직한 생각의 표현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위주가 되어 보이는 시에도 그 기저에는 시인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곡이 여말 선초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사실과 감흥을 기록한 시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진부할 정도이므로 그 외에 운곡이 사실을 기록

28) 元天錫, 『耘谷行錄』 卷1, 「十五日, 發方山到楊口郡, 吏民家戶歛斜倒地, 寂無烟火. 問諸行路, 答曰, 此邑乃狼川郡之兼領官也. 自古地窄田磽, 民物凋殘. 比來權勢之家奪有其田土, 擾亂其人民. 租稅之多, 雖容足立錐之地, 無有空閑, 每當冬月, 收租徵斂之輩, 填門不已, 一有不能則高懸手足, 加之以杖, 剝及肌骨, 居民不堪, 流移失所, 故如斯也, 予聞其語, 作五言八句, 以著衰亡之實云.」.

29) 임종욱 엮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1997, p.601.

하고 전달하기 위해 시를 짓게 된 경우를 살펴본다.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백성에게 덕을 끼친 관리의 덕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 시를 짓기도 했다.

나 역시 그 교화를 받은 한낱 어리석은 백성으로, 그 은혜와 덕택을 입은 지 오래 되었다. 장차 그 덕을 칭송하려고 했지만, 좁은 소견으로 아무리 옛본들 푸른 것을 표현하고 흰 것을 찬양하는 데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나 잠자코 있어 전하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오늘의 아름다운 사실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24구의 시 한편을 지어 내 친구 여러분께 보이고, 또 후세 사람들에게 느낌이 있기를 바라면서 삼가 이 시를 써서 책상 앞에 바친다.³⁰⁾

전 자사 민공이 서봉익의 별장에 쓴 시에 차운한 시와 서문

내가 그 시를 읽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민공의 덕행은 마치 규벽과 같아서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우물 속에서 보는 소견으로 하늘을 칭찬해봐야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자코 말하지 않으면, 민공이 백성을 기른 은혜나 서공이 민공과 사귄 도리를 뒤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중략) 저도 역시 이 고을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인끈을 풀던 날에 마침 상복을 입은 중이라 함께 전송하지 못했으니, 이 역시 내게 탄식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서공의 깨우침을 입고 사모하는 정이 갑절이나 더해, 삼가 원운을 따라 시 4수를 지어 올립니다.³¹⁾

한편 원천석은 지방에 거처하고 있으면서도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축수를 거두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나라의

30) 元天錫, 『耘谷行錄』 卷2, 「上河刺史詩(并序) 允源」, “僕亦化下一愚民也, 涵泳恩澤者久矣. 將欲頌德, 操管所窺, 有何益於褒青讚白乎. 然默默而不傳, 則後之人焉能盡知今日之美論哉. 因成二十四句一章, 以示吾儕二三之子, 庶有感於將來者 謹寫其詩奉呈机下.”

31) 元天錫, 『耘谷行錄』 卷2, 「和前刺史閔公題徐奉翊郊居詩(并序)」, “僕讀其詩, 乃曰, 閔公之德行, 如圭如璧, 不可尙已, 以予之井觀, 有何益於譽天乎. 然默默而不語, 則後之人焉知閔公牧民之惠 與夫徐公之與閔公深有交道乎. (中略) 僕亦州民之一也, 當其解印之日, 適居纒經之中, 未得攀轅 是亦吾生之遺嘆也. 幸因徐公之所諭 倍殫思慕之情 謹次元韻作四首以呈似.”

평안을 기원하고 위기를 극복했을 때에는 그 기쁨을 시로 적었다. 1361년 홍건적의 제 2차 침입이 시작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한 시 「卽事」는 그의 염려가 잔뜩 담겨 있다.

匝地風塵勝去年 땅 가득한 풍진 지난해보다 더하니
 四方何處不騷然 사방 어느 곳인들 시끄럽지 않으랴.
 我邦若固盤安業 우리나라 터전이 반석처럼 견고하다면
 天使斯民尊枕眠 하늘 이 백성을 편히 잠지게 하련만.

人皆不覺到新年 사람들이 모두들 새해 온 것을 모르니
 醉享劬勞幾悵然 일에 취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애처로운가.
 與世推移男子事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남자의 일이라면
 莫憂無地可安眠 편히 잠들 곳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으련만.³²⁾

그 해 겨울 개경이 함락되었다가 이듬해 초 홍건적을 대파하고 개경을 수복하는 쾌거가 있었다. 원천석은 어김없이 이에 대하여 경축하는 시를 창작하였다.

辛丑年(1361) 11월 홍두적이 왕경에 들어닥쳤다. 나라에서 임시로 도읍을 옮기고자 임금의 수레가 남행하여 복주에 머무셨다. 평장사 정세운을 총병관, 평장사 안우를 상원수, 정당문학 김득배와 찬성사 이방실, 동지밀직 민환 밀직부사 김림 등을 부원수로 하여 여러 장수와 양계 육도의 마병 보병 십만을 거느리게 하고, 壬寅年(1362) 정월 18일 곧바로 도성에 이르러 사면으로 협공하여 적을 완전히 소탕하여 우리 삼한으로 하여금 왕업을 다시 일으키게 했다. 이에 절구 두 수를 지어 태평성대를 축하한다.³³⁾

32) 元天錫, 『耘谷行錄』 卷1, 「卽事」.

33) 元天錫, 『耘谷行錄』 卷1, 「辛丑十一月, 紅頭賊兵, 突入王京. 國家播遷, 大駕南巡, 留住福州. 命平章事鄭世雲, 爲摠兵官, 平章事安祐, 爲上元帥, 政堂文學金得培, 贊成事李芳實, 同知密直閔渙, 密直副使金琳等, 爲副元帥, 摠領諸將帥兩界六道之馬步兵十萬, 於壬寅正月十八日, 直至京城, 四面合攻, 掃蕩賊塵, 使我三韓, 復興王業. 作二絕, 以賀太平云。」.

태고 보우가 왕사가 되던 해인 1356년에 나라에서 맨드라미 심기를 명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창작한 시도 있다. 이 시의 말미에 시인이 직접 이 시구를 쓰게 된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身年六十已曾過	내 나이 예순을 이미 지났건만,
兀兀相隨人海波	몸은 아직도 사람 바다 물결에 부대끼네.
追感前朝明教化	전조의 밝은 교화를 이제야 느끼면서,
種花先種曼多羅	꽃 심을 때는 먼저 만다라부터 심네.

병신년(1356)에 나라에서 전국의 사원과 인가에 명령을 내려 모두 이 꽃을 심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구절을 썼다.[丙申年 宣旨勅內外寺院人家皆種此花 故云]³⁴⁾

앞에서 운곡의 시집 서문을 쓴 박동량이 운곡 시의 풍속 기록을 특별히 기록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을 논한 바 있다. 운곡은 단순히 풍속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만이 아니고 전년도와 달라진 점, 달라진 이유, 그에 대한 감회 등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시 「端午偶吟」에는 단오날 풍경이 묘사되면서 그 속에 강제된 변화로 인한 허전함과 낯선 광경 때문에 속상하여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新羅是日號爲車	신라에서는 이 날을 수리[車]라 불렀는데,
州郡鄉風不一科	주군마다 풍속이 한결 같지 않았네.
此邑今年除古格	이 고을에선 올해 들어 옛 풍속을 없앴으니,
王家舊澤絕餘波	왕가의 오랜 은택 그 여파가 끊어졌네.

去年看樂郡東樓	지난해 동루에서 풍악 불 때엔,
官席杯盤散不收	관리들의 술자리가 어지러웠지.
今日此門人寂寞	오늘 이 집 문에는 사람 발자취 적막하니,
含情苦憶鄭遨頭	정 머금고 괴롭게 鄭遨頭를 생각하네.

34) 元天錫, 『耘谷行錄』 卷4, 「鄭公見和 復次韻」.

天中令節是今朝 천중가절이 바로 오늘 아침인데,
 何處樓臺有寂寥 어느 곳 누대이고 모두 쓸쓸하네.
 獨對艾翁成一笑 홀로 쭈 사람을 마주해 한바탕 웃노라니,
 守門功效可能饒 문 지키는 효험을 칭찬할 만하네.

欲從新法保民區 새 법에 따라 고을 백성들을 보살피려는데,
 且問熏風解慍無 노여움 풀 훈훈한 바람은 없나.
 呈戲已禁黃色蓋 놀이에는 이미 누른빛 일산을 금하였지만,
 避兵宜佩赤靈符 난리 피하려면 의당 적령부는 지녀야 하리.

고을 풍속에 놀이를 벌일 때에는 언제나 누른빛 일산을 썼으며, 옛사람의 말에 의하면 “5월 5일인 단오날에는 적령부를 찾다”고 한다.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鄕風 伎會尙黃蓋 古云五月五日 佩赤靈符避兵 故云]³⁵⁾

단오날이 되었지만 지난해와는 너무도 달라진 정경이다. 신라 때부터 있어온 큰 명절이건만 관가에서 종전의 단오 문화를 금지시킨 까닭에 쓸쓸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 시인은 전년도에 놀이를 주도하여 즐거움을 주었던 정오두를 추억하며 적막한 중에 매달려 있는 애옹(쭈으로 만든 인형)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새로운 법으로 백성들을 대하지만 백성들의 분노를 해소할 방법은 묘연하다. 놀이에서 황금색 일산 사용은 금지하였어도 전란 막기를 기원하는 적령부는 붙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잘 시 속에 드러나고 있다.

Ⅲ. 結語

원천석의 시 창작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고 더 좋은 시를 짓기 위한 노력은 치열했다. 그는 단 하나의 한자가 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참을

35) 元天錫, 『耘谷行錄』 卷5, 「端午偶吟」.

수 없어 수없이 연습하느라 쓰고 버린 종이 뭉치가 언덕을 이룰 정도라고 하였다.³⁶⁾ 어떤 때는 시 짓기에 골몰하여 골짜기를 부지불식간에 지나치기도 하고, 시 세 수를 완성하고 나니 새벽닭이 울기도 하였다고 한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일을 만나거나 풍경을 대할 때 보이는 상황과 솟아나는 정서를 시화하기 위해 애쓴 전형적인 시인 원천석의 시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를 찾아 그의 시 인식을 단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의도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천석은 ‘시란 진솔하고 간절한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딱 잘라 이것이 원천석의 진정한 시 이해이거나 시 이해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두렵다.

원천석이 외로움, 한, 기쁨, 두려움 등 온갖 정서를 시로 표현해 냈다는 증거는 많고 그런 정황을 담았거나 시어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원천석의 시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에는 원천석과 그의 시에 대한 공부도 더 있어야 하고, 시론에 대한 공부도 더 있어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원천석의 진면목을 찾아 보이고 그가 절의의 사람이라든지 은거한 처사라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 시인으로서 정말 위대한 존재였음을 증명해 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36) 元天錫, 『耘谷行錄』 卷4, 「再用韻擬古」, “吾今得此軸, 欲和憂還憂. 一字未安處, 如冬扇夏裘. 江流難接履, 山逕豈行舟. 數篇纔寫出, 遺稿堆成丘. (내 이제 이 시축을 얻어 보고 / 화답하려 하면서도 새삼 걱정일세. / 한 글자 온당치 않은 곳은, / 겨울의 부채요, 여름의 갓옷 같아. / 흐르는 강물 밟고 걸어갈 수 없으며, / 산 실에 어찌 배를 띄울 수 있으리오. / 두어 편 시를 겨우 짓고 나니, / 내버린 원고 뭉치가 언덕을 이루었네.)”

<參考 文獻>

『毛詩』

元天錫, 『耘谷行錄』

劉 勰, 『文心雕龍』

김희섭, 「운곡 원천석의 시문학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남화숙, 「원천석 문학의 방외인적 특성 연구」, 부산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안병학, 「성리학적 사유와 시론의 전개 양상」, 『민족문화연구』 32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임종욱 엮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중국편』, 범우사, 1997.

——, 『운곡 원천석과 그의 문학』, 태학사, 1998.

赵则诚 主编, 『中国古代文学理论辞典』, 吉林文史出版社, 1984.

Abstract

*Study of Poem Awareness through ungok Won Cheonseok / Namgung Won**

We call him Ungok, Won Cheonseok. He was good at writing poems. To be a good poet, he tried to make efforts to compose poems. The number of poems in his life is 1,144 compositions. Studies have shown that his poems's comments have mainly focused on his views of history and society, not his senses of poem because they were overwhelmed to his fame known as recluse.

Let's review his senses of poem.

He realized a poem is a life. Then he embodied everything in his own image. He expressed his views of religion and value in his poems. He closely related his life with poems. Through his poems, we exactly traced his life.

He thought of a poem as meaning and expressions of being real and earnest. He followed the traditional belief among Confucian. That is Eonji. Eonji is a meaning. On the other hand, a poem is a expression that manifests human's emotions. A poem contains various emotions that occurs to his mind.

To disclose and record these days, he composed poems. He thought highly of documentary record. From this respects, we called his poetry like Sisa. It means chronicle of poem. So he composed both historial events from late Gorye to early Joseon and records about miscellanies.

【Key words】 Won Cheonseok, Life, meaning, emotion, real record

투고일 : 4월 22일, 심사일 : 5월 23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Chiak High School, Teacher / onewon61@hanmail.net